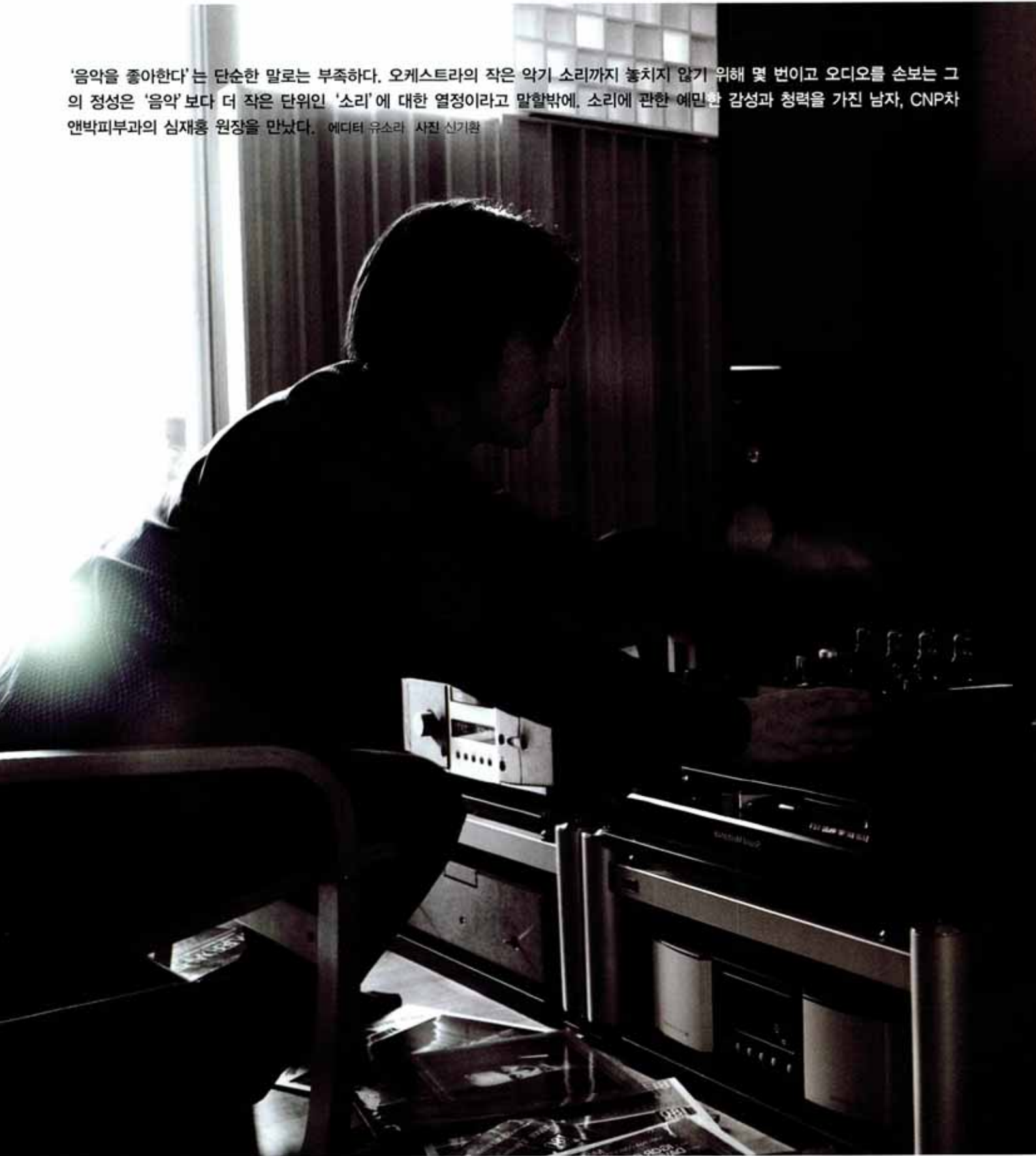


'음악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다. 오케스트라의 작은 악기 소리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몇 번이고 오디오를 손보는 그의 정성은 '음악'보다 더 작은 단위인 '소리'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할밖에. 소리에 관한 예민한 감성과 청력을 가진 남자, CNP차 앤박피부과의 심재홍 원장을 만났다. 에디터 유소라 사진 신기환





CNP치앤박피부과 심재홍 원장

오페라 하우스를 방 안에 들이다



용인시수지에 위치한 심재홍 원장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에디터는 리스닝룸으로 안내되었다. 명함을 꺼내고 통성명을 하는 첫 만남의 예의를 차리기도 전, 그는 오디오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며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의 오디오 예찬이 멈출 것 같지 않아 명함을 꺼내며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에디터에게 돌아온 것은 만면에 선해 보이는 웃음을 띠며 '음악 듣는 게 인사죠' 라는 전문답 같은 대답. 완벽한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진 리스닝룸에서의 음악 감상은 1시간여나 계속되었다.

소리와 진동에 관한 깊은 관심 심재홍 원장을 찾아가기 전에 한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오디오가 아니라 오디오 '액세서리' 들을 컬렉팅한다는 말에 하이엔드(High End)에는 문외한인 에디터는 감이 오질 않았다. 오디오에 관한 액세서리라니, 우퍼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 실제로 그가 마니아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보다 작은 소품인 튜닝용 진동 제어장치나 케이블, 음향판 등이다. 심 원장의 개인 음악 감상실인 리스닝룸에 들어서면 방 안을 가득 채운 스피커와 앰프 등의 오디오



완벽한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진 리스닝룸



갖가지 재질과 다양한 모양의 진동 제어장치

오 시스템에 입이 딱 벌어진다. 찬찬히 둘러보면 벽에는 음향판이 양 벽면에 복사한듯 똑같이 부착되어 있고, 한쪽에는 다양한 튜닝용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다.

“소리는 저음, 중음, 고음이 있는데 소리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어 들는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고음이 저음보다 속도가 빠르죠. 소리의 속도를 조화롭게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음향판입니다. 공연장을 가보면 양쪽 벽면이 평평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게 음향판과 같은 원리예요.”

나무, 쇠, 크리스털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튜닝용 액세서리는 ‘진동 제어장치’라고 불리는데, 보통 오디오나 앰프의 받침 용도로 쓰인다. 이 작은 액세서리 하나가 들어가고 빠짐에 따라 오디오의 소리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전에는 ‘진동 방지장치’로 불리던 것이 ‘진동 제어장치’로 불리게 된 것은 진동을 방지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변한 까닭이다.

모든 진동을 막는 것보다 진동을 잘 전달하고, 조절하는 것이 좋은 소리를 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 턴테이블과 앰프 등을 받치고 있는 랙(Reck) 또한 진동 제어장치 역할을 한다.

오디오 뒤편에 얹히고설켜 있는 케이블 역시 심 원장이 중요시하는 액세서리다. 전류를 전달하는 케이블이 소리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민한 그의 귀에는 케이블의 굵기와 중

류에 따라 소리가 확연히 다르다. 이전에는 하이엔드 마니아들 사이에서 케이블이 소리에 미치는 영향의 여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케이블이 바뀌면 소리가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다.

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부는 케이블에 쓰인 색의 염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케이블 또한 진동의 영향을 받으면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블을 받치는 액세서리까지 등장한다. 극단적인 마니아 중에는 빛도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리스닝룸에 형광등 대신 백열등을 쓸 정도다. 그리고 당연히 방 안의 사람 수에 따라서도 진동을 흡수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진다고 한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액세서리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음악의 소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미묘함이 그는 경이롭다고 말했다. 그런 경이로움이 그를 하이엔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리라.

공연 현장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하여 심재홍 원장이 처음 오디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의관 시절, 선배가 들려준 오페라 때문이었다. 클래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기계는 오직 테이프를 훑는 워크맨뿐이었다. 차츰 오페라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그는 오페라 전곡을 듣기 위해 포터블 CD 플레이어를 구입해 컴포넌트에 연결했다. 그것이 하이엔드 세계에 첫발을 들인 순간이다.

초창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도 오페라를 볼 때 무대 위 배우들의 노랫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차츰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악기 소리가 두 개 정도 들리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악기 소리를 분리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공연장에서 얻은 감동을 그대로 리스닝룸에 옮겨놓고 싶어 공연장의 소리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액세서리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오디오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금의 오디오 시스템이 갖추어지기까지는 만 3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더 완벽한 소리를 위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오디오 시스템에는 '완성품'이란 없다.

심 원장의 오디오 시스템이 3년 동안 같은 상태에서 일주일 넘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 끊임없는 진화를 말해준다. 오디오 시스템은 스피커를 바꾸면 부수적인 기계들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의 스피커는 카르마 CRM 3.2이라는 모델로 3년 전에 구입한 것이다. 오디오에 빠져들수록 기계들이 점점 세분화되어 그 개수가 많아지는데, 그의 리스닝룸에는 파워 앰프와 프리 앰프가 따로 설치돼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 앰프는 인도네시아의 판매상에게 메일과 전화 통화로 직접 물건을 주문해 구입한 것.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나무로 된 것만 보면 두드려보고 다녔어요. 튜닝용 액세서리로 쓸 만한 것이 없을까, 찾는 거죠. 나무가 내는 소리를 들어보고 받침용으로 적당하면 어떻게든 그걸 손에 넣으려 했죠." 한번은 전주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나온 찻잔 받침이 액세서리용으로 훌륭할 것 같아 못 팔겠다는 주인을 겨우 설득해 사온 적도 있다.

오디오 자체는 제조사의 기술자들이 만든 기계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심재홍 원장의 오디오 시스템은 그것만이 내는 소리세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관하는 음악 감상용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 양쪽에서 나오는 섬세하고 풍부한 사운드에 세 평 남짓한 작은 방이 대형 오페라 하우스로 바뀐다. 이 방에서 듣는 베토벤은 더욱 웅장하고, 퀴는 더욱 다이내믹하고, 박화요비는 더욱 애절하다. 그리고 심 원장이 자주 듣는다는 오페라 음악을 눈감고 들으면 무대가 저절로 상상된다. 악기 하나하나의 질감과 울림이 그대로 전달되는 음악을 듣고 있자니, 그의 오디오에 대한 마니아적인 열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퇴근 후, 환자들을 돌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리스닝룸에서 음악을 듣는 것으로 피로를 쫓는 심재홍 원장. 몇 백 장의 LP판과 몇 천 장의 CD가 있는 그의 앨범 컬렉션 목록에는 오페라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즈, 클래식, 팝, 그리고 대중가수 '핑클'의 앨범도 있을 만큼 다양하다. 매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은 소리를 창조하는 그의 일은 아마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

